"'뉴질랜드 스쿨링 캠프' 다녀와 영어에 자신감 붙었어요"

광주일보 어학연수 수료 발표회

광주일보가 주관한 2012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 캠프 3차연수 참가학생들이 지난 22일 귀국했다. 연수 참가자 21명은 이날 오후 광주일보에서 수료증을 받은뒤 발표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사가 지난 1월24일부터 2월22일까지 실시한 초·중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연수에 참여했던 광주·전남지역 초·중학생 30명은 4주간의 알찬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했다. 이번 연수단은 광주일보가 지난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2012 뉴질랜드 스쿨링 캠프'의 참가자들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현지일정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연수학생들은 뉴질랜드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현지인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영어실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한뉴문화교류센터의 철저한 연수생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참가자들의 안전관리는 현지 교류센터 직원·학교 교사·홈스테이 부모 등 3중으로 철저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수학생들은 한결같이 "이번 연수를 통해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박도현(11·광주삼육초 4년)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했지만 외국연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 "뉴질랜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외국 친구들과 야구도 즐기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어 너무 유익했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뉴질랜드 스쿨링 캠프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마련한 어학연수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타사의 해외기숙형 과외 연수와는 다르다. 또한 현지 학생들의 집에 머무는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면서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이번 연수의 특징이다. 특히 홈스테이 담당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춘 24시간 연수생 보호시스템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 현장체험과 야외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학연수의 즐거움을 더했다.

광주일보는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뉴질랜드 스쿨링캠프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의 (062)220-055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목표 스스로 세워보세요"

담양중 신입생 대상 '진로 비전캠프' 마련

전남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진로진학캠프를 열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3일 담양중학교(교장 김성희)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교내에서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로 비전캠프'를 열었다. 〈사진〉

이번 캠프는 교사, 부모들과 또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포부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고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열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입생들은 '진로비전 선포식'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신의 꿈을 소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학부모 정재란씨는 "아이들을 위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준 학교에 신뢰가 생긴다"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담양군은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해 이번 행사를 지원했다.

김성희 교장은 "신입생들이 스스로 미래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공무원 4명 공학박사 학위 취득

김정선씨

박철웅씨

유호규씨

김병호씨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 4명이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주인공은 전남도 도로교통과 김정선 사무관, 방재과 박철웅 사무관, 지역계획과 유호규, 방재과 김병호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열린 지역 대학의 학위수여식에서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최고 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학위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무경험과 학문연구를 연계해 전남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내이름은 민상아, 엄마를 찾고 싶어요"

나주 출신 지적장애 3급,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출전

"열심히 달려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가 한창이다. 각기 다른 사연과 장애를 안고 있는 9개국 지적장애인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 그 속에 감동의 질주를 하는 이가 있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지적장애 3급의 민상아(21). 상아라는 예쁜 이름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나주 사회복지시설인 성산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상아는 7살 무렵 나주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됐다. 사람들은 혼자 울고 있던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찾는 이가 없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던 아이는 결국 미상아(未詳兒)로 복지시절로 옮겨졌고 민상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우연히 시작한 달리기가 민상아의 삶을 바꿨다.

재활치료를 위해 달리던 것이 매일 4㎞ 이상을 뛰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거리와 지구력이 늘어나면서 민상아의 마라톤이 시작됐다.

이후 달리기를 이끌었던 김수옥 성산원 물리치료사의 응원과 격려 속에 대회에 출전하게 됐고, 2011년 아테네 하계 스페셜올림픽 육상 1500m 출전해 동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달리기가 좋기도 했지만 메달을 따 유명해지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출전했던 대회였다.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민상아는 이번 프레대회에 출전했다. 첫 동계대회다.

마라톤과 비슷한 크리스컨트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연습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장비를 살 엄두도 내지 못해 장비를 빌려 500m 예선 출발선에 섰다. 꿋꿋하게 결승선을 통과한 민상아는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500m 결승을 앞두고 있다.

김수옥 코치는 "스키가 적응이 안돼서 힘들어 했는데 컨디션도 좋고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며 "운동을 하면서 상아가 많이 밝아졌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한다. 상아의 마음이 닿아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

조선대병원 박영진 교수 조선대의대 출신 첫 정년퇴임

조선대병원이 개원(1971년) 40년 만에 첫 번째 조선대 의대 출신 정년퇴임 교수를 배출했다.

조선대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박영진(65)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23일 정년 퇴임했다.

박 교수는 지난 1967년 조선대 의대에 입학한 후, 1976년 조선대병원에 인턴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전공의를 거쳐 1981년 조교수로 임용됐다.

조선대병원이 개원했을 당시 1970년대에는 광주·전남지역 의료 시설이 부족했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비해 의료진 수도 적었기 때문에 조선대 의과대학 개설 및 조선대병원 개원은 지역민들에게 단비와 같았다.

박 교수는 진료 분야가 아닌 혈액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임상병리과(현재 진단검사의학과)를 지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최고의 병원인 MD Anderson cancer center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방문교수로 1990년부터 1년간 연수를 받기도 했다.

기독교 신자인 박 교수는 퇴임 이후 해외의료 선교 활동으로 봉사할 예정이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 조선대병원에서 배운 의료 지식을 발휘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정기총회

(사)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회장 강남희)는 최근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서부경찰 학교폭력 주민의견 수렴

광주서부경찰(서장 안병갑)은 23일 오후 관내 주민 20명을 초청해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환경, 학교폭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서부경찰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일용(전 주월중교사)·장문자씨 장남 창훈군 양철분씨 막내 박미화양=25일(토) 낮 12시 40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한택희(전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박영란씨 장남 승규군 윤세형씨 장녀 지선양=3월3일(토)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 1층연회장.

종친회

▲광산이씨 현영공파 2012년 정기총회=25일(토) 오후 3시 광산이씨 현영공파 종회 회의실(북구 유동) 062-528-9200.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정기총회=27일(월) 오전 11시 이화회관(동구 대인동) 062-225-5631.

동창·동문회

▲숭우회 2012년 2월 월례회의=24일(금) 오후 6시 백운산식당(대인동 옛 현대예식장 길 건너편) 062-222-4569.

알림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등이 요청하면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강사=교육기간은 3월 6일~10일(오후 1시~5시) 청소년자원봉사교육에 관심있는 성인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유교대학 2년제 신입생=주요 학과목은 유교사상입문,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선착순 50명으로 등록금은 10만원(학기당), 28일(화)까지 원서접수. 유교대학사무처 062-672-7008, 6501.

▲무진농악단 6기 무료 국악교육생=장구기초반(매주 수요일 1시30분) 승무북 및 난타반 (매주 목요일 2시) 각반 20명 29일(수)까지 선착순 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5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1) 양택, 음택·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 (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012학년도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6기생=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남녀 선착순 60명 모집(무료). 29일(월)까지 입학원서·증명사진·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사단법인 대안노인회 광주시 연합회 062-652-7374.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 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건강수지침 회원=매주 목요일 오후 2~3시20분까지.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부음

▲김광두씨 별세 석준·석원·석인·선희씨 부친상=발인 25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귀덕씨 별세 오승대·길순·길례·귀례·희순·양순·라헬씨 모친상=발인 25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유순님씨 별세 차용훈(조선대학교)·창훈(신원씨엔)·재훈(두우엔지니어링)·윤희(개인사업)씨 모친상 강춘옥(금당중학교)·최윤옥·유 정씨 시모상 장윤기(개인사업)씨 빙모상=발인 2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정명호 님(남/59세)
子 : 정영석
女 : 정영희
未亡人 : 문미순
• 호실101호 • 발인:2월 24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5

故김망월 님(여/88세)
子/子婦 : 김광열 / 오순애, 치열 / 최순자
孫/孫독 김민재 / , 기태 / , 은하 / 양재석
윤형 / 임진혁
• 호실201호 • 발인:2월 24일
• 장지:영암금정 • 연락처:227-4381

故남복례 님(여/83세)
子/子婦 : 윤재천 / 신영숙, 재출 /, 재원 / 선영숙
재오 / 김납님 재복 / 안영희
女/壻 : 윤재숙 / 김정기
• 호실401호 • 발인:2월 24일
• 장지:화순춘양 • 연락처:227-4383

故박종철 님(남/63세)
子/子婦 : 박현철 / 김미숙, 정철 /
女 : 박현정
• 호실102호 • 발인:2월 24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